

가구산업, 시장 규모 16조3000억원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가구 산업이 소비 트렌드 변화와 가구수 확대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 중이다. 특히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와 가구에 대한 소비자의 구입 기준이 바뀌면서 생활가구산업이 주목받고 있어 가구산업의 성장세는 올해와 내년에 더욱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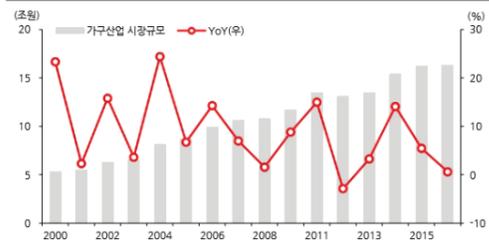
11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시장 규모는 16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14년 대비 약 6% 성장했다. 지난해 국내 대형마트 시장규모가 40조원, 백화점 30조, 편의점시장 20조4000억원, 렌탈시장 25조5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시장의 흥망과 달리 상당한 규모를 갖고있는 시장이다.

가구 시장은 건설 시장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신규주택 공급과 주택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집에 있는 물품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구산업은 2000년 중후반, 특히 2006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둔화했다. 국내 주택경기 침체를 거치면서 신규 분양물량이 감소했고, 동시에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멈추면서 매매거래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부진한 흐름은 2012년까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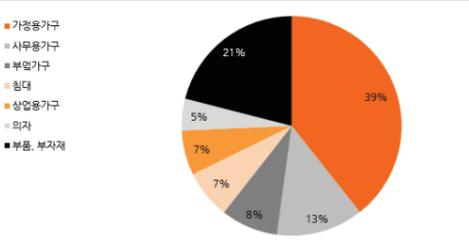
그러던 중 2012년 이후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며 주택 가격은 재차 상승하기 시작했다. 가구 수요도 동시에 성장했다.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생존해 있던 상위업

▶ 가구시장 규모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 가구산업 내 각 산업별 비중



자료: 한국주거연구원, 한화투자증권

주택경기 침체 따라

2012년까지 부진했으나

주택매매 거래 늘고

디자인 중시로 트렌드 변화

2018년 구조적 성장기 돌입

시장규모 18조원대 예상

체 위주로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기 시작했다.

최근 주택매매 거래량 증가로 가구 수요도 확대됨에 따라 가구 시장은 성장세를

유지, 2018년에는 약 18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그동안의 낮은 성장률에서 반전해 올해와 내년에 강한 성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주택매매 가격 상승과 매매 거래량은 이사 수요와 연계된다. 주택 가격 상승은 주택 가격 상승 기대로 인한 매매 활성화를 유발시키며, 이는 이사 수요 확대에 따른 가정용 가구 매출 증가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5~2016년에 공급된 분양물량은 연평균 50만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아파트 연평균 분양물량이 약 27만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공급이 약 85% 증가한 것이다. 이 물량은 건설이 준공되는 2017~2018년의 가구 수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분양물량이 완공물량으로 전환하는 시점에는 신규 이사 수요가 확대되며 가정용가구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2018년까지 가구시장은 구조적인 성장기에 진입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가구에 대한 트렌드와 소비자의 상품 구입 기준이 바뀌면서 가구의 판매 회전율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가구시장 성장에 호재다. 지난해 한샘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의 선택 기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디자인(약 39%)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의 내구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과거보다 약화되면서 가구 업체들은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디자인을 강화하고 가격을 낮춘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가정용 가구시장

'3강 체제' 구축하나?

우리나라 전체 가구시장은 2018년까지 분양물량 증가로 특관용 가구의 매출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가정용가구 시장의 경우는 이케아의 공격적인 점포망 확대가 진행됨에 따라 이케아, 한샘, 현대리바트 3강 체제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가구공룡 이케아는 2020년 6개 매장이 오픈을 완료한 시점에 가구 관련 매출액이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 12월 광명에 1호점을 오픈한 이케아는 2015년 약 3000억원, 2016년 3448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케아는 올해 고양시에 2호점을 출점할 예정이고, 오는 2018년 경기 혹은 서울 주변에 3호점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 2020년까지 한국에 6개 매장을 구축하는 동시에 북유럽 스타일도 건립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구공룡' 이케아가 국내 진출한 2년간 우려와 달리 전체 가구시장 규모를 키우는 등 시장잠식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왔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향후 매장수가 더 늘어나고, 물류망 확대를 통한 추가 가격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이케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국내 가구 업체는 몇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케아의 점포망, 물류망 확대 등으로 인한 국내 가정용 가구시장 재편과정에서 비브랜드 업체들의 점유율은 하락하겠지만, 이케아와 경쟁할 수 있는 일부 국내 브랜드 업체들은 점유율 상승이 예상된다.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가구시장에서 브랜드 로열티를 이미 형성해 있고, 이케아처럼 대규모 쇼룸 매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셉트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갖춘 것이 경쟁자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리바트는 중장기적으로 생활용품 사업부를 육성하며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최근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기업 윌리엄소노마 제품을 올 하반기부터 독점으로 판매하며 생활용품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계획이다.

한샘은 최근 채널 전략의 중심축을 기존의 직매장에서 통합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하우스(Re-House)'로 변경했다. '리하우스'의 출점 확대는 리모델링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구축하며 한샘의 실적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리하우스 매장은 향후 리모델링 시장과 동반 성장하기에 적합한 모델이고, 이를 통해 그동안 판매해온 부엌 및 인테리어 가 구에서 제품군을 더 확대하기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관용 가구, 내년까지 가구산업 먹여살릴 듯

가구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 속에 2018년까지는 '특관용가구(B2B)'가 가구 산업 전체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내년의 아파트 공급물량은 과거 평균보다 약 85%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특관용가구 시장규모는 지난해보다 30.4% 성장한 2조4000원 수준, 2018년에는 3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특관용가구 시장규모는 약 1조 8000원으로 전체 가구 시장의 11.5%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차량용 설치 가구를 제외하면 16.7%를 점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물량은 2007년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2000년 이후 2014년 연평균 분양물량은 약 27만 세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공공주택 발주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공급물량은 증가하기 시작했고, 올해와 내년의 입주물량은 각각 37만

가구, 4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특관용가구의 수익률은 과거 3~4% 수준이었지만, 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던 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됐다. 이 과정에서 업계 2위 사업자였던 '파세'와 '파로마' 등이 도산했고 일부 비브랜드 업체도 영업 활동을 종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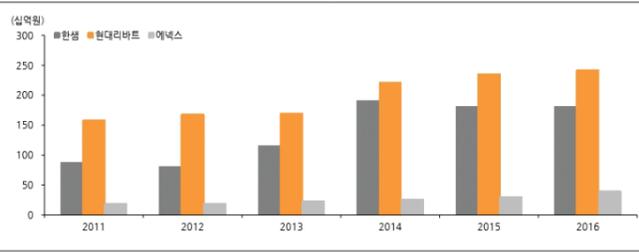
'보루네오' 또한 2015년 공사를 통해 아파트영업 사업부문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특관용 가구 시장은 2014년에 '현대리바트', '에넥스', '한샘'의 3강 체제로 재편됐고, 이후 발생하는 물량을 3사가 주도적으로 수주하는 형국으로 전환됐다.

시장 재편에 따라 현대리바트, 에넥스, 한샘 3사의 특관용가구 사업 실적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현대리바트와 에넥스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현대리바트는 1위 사업자로 상위 10개 건설사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현대백화점그룹에 편입된 이래

올해·내년 아파트 공급물량 85% 늘어나 매출 호조 기대

▶ 특관용 가구 실적



자료: 한화투자증권

안정적인 범현대 건설사향 매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넥스는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전개해 나갈 전망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가정용 가구의 매출 비중이 낮고 브랜드 경쟁력

이 약해 안정적인 마진보다는 수주 확대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2006년 이후 주력사업을 B2C로 전환한 한샘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뉴스

부래만복~ 부안에 오셔서 오복을 가득 받아주세요

제54회 The 54th Jeollabukdo Sports Festival 전라북도민체육대회

개막·축하공연 4월 28일(금) 오후 6시~10시 부안군 스포츠파크 내 특설무대

6시 흥진영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B1A4, 우주소녀 등의 축하 속에 3일간 전북도민체전 일전 돌입



축복의 땅 부안에서 생동하는 전북의 꿈

제54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2017.4.28~4.30/3일간

제54회 전라북도민장애인체육대회 2017.5.10~5.11/2일간